

부동산개발자금(PF) 대출 전문은행
동양저축은행
 [082]228-0180

光州日報

생존년의 연인,
엄앵란이 찾아드립니다.
 대표강심전호 장영환
 광주지사 062-228-3222

The Kwangju Ilbo

민주·인권·통일 '5월정신' 세계 '평화의 전령'으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 17일 '광주 선언'

15일 국립5·18묘지 참배

'5·18 정신'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확산시키는 '평화의 전령'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2006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15일~17일)' 참석자들은 행사 마지막 날인 오는 17일 "5·18정신"의 확산을 통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안착시키자"는 내용의 '광주선언'을 전 세계에 발표, '5·18' 세계화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관련기사 3·9면>

이들은 아울러 인류 평화의 결실물인 빈곤 퇴치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 AFP통신, 아사히신문 등 해외 주요 언론사들도 행사 취재를 위해 특별취재반을 파견하는 등 이번 행사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전 세계 평화·인권운동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회의에서도 '5·18정신'에 대한 재조명을 바탕으로, 아직도 인권이 탄압받고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지 못한 아시아 및 국제사회의 여러 나라들의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 각지에서 인종 간 화해와 인권개선 및 민주화에 공헌한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은 3일간의 행사 동안 세계 평화에 인생을 걸었던 각자의 경험을 소개함과 동시에 현대 국제사회에서 5·18정신이 갖는 의미와 위치를 되새길 예정이다.

이들은 또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 마지막 세션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및 번영을 모색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어서, 광주는 '5·18정

신'과 함께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7인과 7개 수상단체 대표 등 14명의 수상자들은 본 행사의 첫 번째 행사로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택해 이번 행사 '5·18정신'의 확산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같은 시기에 광주에서 열리는 6·15민족통일대축전의 북측 대표단 60여명도 14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5·18정신'을 기릴 예정이다.

5·18민중항쟁 유족회 정수만 회장은 "항쟁 이후 10년 이상을 국가에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5·18이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인권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를 계기로 5·18정신의 세계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행사가 차질없이 치러지도록 모든 지역민이 협력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한국축구사의 새로운 장을 펼칠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다. 토고와의 월드컵 1차전을 준비중인 태극전사 박지성이 10일 오후 레버쿠젠 바이 아레나에서 열린 공개훈련에서 교민들의 태극기 응원을 뒤로 한채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16강 향한 운명의 결전 “오늘밤 토고는 없다”



▶ 관련기사 4·5·7·8·15·20·22·23면

밤 10시 토고와 첫 경기

'끝나지 않은 신화'를 완성할 결전의 날이 밝았다.

덕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13일 오후 10시(이하 한국 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월드컵경기장에서 2006 독일월드컵 본선 G조 조별리그 첫 경기로 아프리카의 북병 토고와 운명을 건 맞대결을 벌인다.

지난달 27일 전 국민의 열원을 부른 가슴에 안고 장도에 오른 23인의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전지훈련과 독일내 베이

스캅 필름에서 모든 담금질을 소화하고 12일 오후 6시30분 '승리의 땅' 프랑크푸르트로 향한다.

더 이상 말이 필요없는 한 관이다. 어떤 결전도 이보다 더 중요할 수 없는 일전이다. 월드컵 조별리그는 세 경기를 치르지만 첫 경기에서 사실상 팀의 사활이 좌우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형편할 수 없는 결전의 무게가 그라운드를 짓누르는 승부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23인의 태극전사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가겠다"는 말로 출사표를 던졌다.

오늘밤의 월드컵

<13일>
 한국 G 토고
 프랑크푸르트 22:00 KBS1·MBC·KBC

<14일>
 프랑스 G 스위스
 슈투트가르트 01:00 KBS2·MBC·KBC
 브라질 F 크로아티아
 베를린 04:00 KBS2·MBC·KBC

스코어 보드
 네덜란드 (1승) 1 C 0 (1패) 세르비아
 멕시코 (1승) 3 D 1 (1패) 이란
 포르투갈 (1승) 1 D 0 (1패) 앙골라

통 붉은 물결로 물든다. 시정앞 뿐이 아니다. 한반도 전역에서 메아리친 붉은 함성이 이역만리 유럽 대륙의 관문 프랑크푸르트까지 전달될 시간이다. <관련기사 3·9면>

아드보카트호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볼 수 없다. 더 이상 돌아보아도 안된다. '월드컵의 바다'에서 망망대해를 헤쳐나갈 진군의 나팔은 이미 울렸다. 홈팀의 대우를 받고 결전을 치르는 한국은 빨강(상)-하양(하)-빨강(스타킹) 유니폼을 입는다. '천만의 투혼'이 깃든 붉은 색 유니폼이다. 토고는 노랑-초록-하양 유니폼을 입고 출전한다.

태극호는 스리백(3-back)으로 토고의 위협적인 투톱 에마누엘 아데바요르와 알렉 카데르 쿠바자를 풍공 뚫고 중원에서 강인한 압박과 수적 우위로 경기의 흐름을 틀어쥘다는 전략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모든 정책 일자리 창출과 연계”

한덕수 부총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밝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모든 정책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결정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재정경제부 간부회의에서 “규제개혁, 개방, 예산배분 등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판단하고 이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반영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 발표될 예정인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일자리창

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 부총리는 또 “최근 G8(G7+러시아) 회의에서 미국과 재무장관 회의를 가졌으며 앞으로 한국 재무부와 미국 재무성이 정기적으로 장관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로써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4개국과 정기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경로는 완성하게 됐다.

한 부총리는 “(재경부) 각 실·국에서 일할 때 글로벌 시각을 갖고 이들 4개국과 정책의견 교환을 활발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후원학원 장학50% 학사비 환급
남부대학교
 http://www.namju.ac.kr
 ▶ 생원로 100-10111 ▶ T.062-610-5000-1

새로운 담겨가는 대학
진남과학대학
 http://www.jinam.ac.kr
 ▶ 진남로 1058-2051 ▶ T.061-360-5000

제 51회 호남예술제 새싹그리기축제(유치부) 공모
 접수마감 : 6월 21일(수)까지
 ▶ http://www.kwangju.co.kr ▶ 전화 : (062)220-0541

2006/2006 우수여행상품 민중 선형 문화관광부 인증 상품 (관광진흥법 제14조) (관광진흥법 제14조) (관광진흥법 제14조)

광주++잠시[장가게] 직항 취향

2006/2006 우수여행상품 민중 선형 문화관광부 인증 상품 (관광진흥법 제14조) (관광진흥법 제14조) (관광진흥법 제14조)

항공사	항공료	항공료	항공료	항공료	항공료
대한항공	409,000+	409,000+	409,000+	409,000+	409,000+
진남항공	409,000+	409,000+	409,000+	409,000+	409,000+
대한항공	409,000+	409,000+	409,000+	409,000+	409,000+
진남항공	409,000+	409,000+	409,000+	409,000+	409,000+

499,000